

전환교육과 성인생활에 대한 청각장애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식 비교연구

이 은 철

전남옥과고등학교

김 진 호*

순천향대학교 특수교육과

《요 약》

본 연구는 청각장애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각장애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전환교육과 성인생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세 집단 간의 인식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설문지는 2개 영역(전환교육과 성인생활에 대한 인식)과 8개의 하위영역에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사대상은 전국에서 7개 청각장애특수학교의 중학부와 고등부에 재학하고 있는 청각장애학생 177명, 학부모 91명, 교사 144명으로 총 412명이 최종분석 대상이 되었다. 전환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학생들에 비해 학부모들이 그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직업전환교육에 대하여 학생과 교사는 취업 및 고용을, 학부모는 일상생활의 자립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었다. 전환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하여 교사는 지역관련업체의 인식 및 협조 부족을 첫째 요소로 지적하였고, 학부모는 시설/설비 및 프로그램 부족을, 학생은 가족/부모의 협조 부족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 영역인 성인생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학생들은 성인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학부모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학진학, 결혼과 자녀 양육, 취업 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와 그에 대한 논의 및 제언은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전환교육과 성인생활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전환교육, 성인생활, 직업교육, 직업전환교육, 청각장애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장애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성인사회 속에서 직업을 가지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환교육을 실시하여 장애학생들에게 성인생활 능력을 최대한

* 교신저자(jinhokim@sch.ac.kr)

향상시키는 것이 특수교육에서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김진호, 2001, 2004a; 박희찬, 2002; 조인수, 2002; Sitlington & Clark, 2006). 전환교육은 장애학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활동으로서 장애학생이 학교를 떠나서 성인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생활을 포함하여 주거생활, 지역사회생활, 여가활동, 추후교육 등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다(박승희 외, 2006; Baer, Flexer & McMahan, 2005; Pierangelo & Giuliani, 2004).

이러한 전환교육은 장애학생의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사회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생활능력을 향상시키며, 지역사회 통합 및 개인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특수교육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이라 간주되고 있다(박정식, 조인수, 2006; 박희찬, 1999, 2002). 더욱이 전환교육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장애학생에 대한 재활복지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나라들보다 전환교육을 학령기 때에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장애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성인생활적응에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김진호, 2003). 신은경(2004)은 발달장애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전환교육에 대하여 특수학교 고등부교사, 발달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 재활기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지는 전환교육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전환교육 실태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전환교육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세 집단 모두 그 필요성을 공감할 뿐 아니라 평균이상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과적인 전환교육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전환교육 과정에 현장훈련 강화, 학교와 재활기관 전문가의 협력과 연계, 지역사회중심 교육 강화를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당면과제는 장애학생이 학교에 다닐 때에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받게 하여 그들이 성인이 되어 특별한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최대한 자립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즉, 장애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받을 때에 그들이 앞으로 성인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지역사회현장에서 학교교육과정과 연계된 훈련 프로그램을 받게 된다면, 그들이 성인이 되어 그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며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김진호, 2002, 2004a).

청각장애학생인 경우는 다른 장애유형에 비하여 이동, 신변처리 등이 자유로워 비장애인과 구별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청각장애인의 비가시적 형태의 의사소통 장애가 가져오는 사회적 불리의 여파는 가시적인 형태의 장애를 가진 자체장애인의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청각장애인이 의사소통의 단절로 인해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내지 못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달엽, 하승미, 2004; 이성규 외, 2002).

곽정란, 정운기, 김경진(2004)은 청각장애인의 관점에서 본 청각장애교육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청각장애인의 관점에서 농교육의 전환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청각장애교육의 전환방향은 첫째, 청각장애아동의 언어적·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청각장애인 교사가 필요하며, 둘째 청각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려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요구되며, 셋째, 청각장애학교는 본연의 교육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과 아울러 청각장애인의 언어와 문화를 지지하는 문화적·언어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을 제시하였다. 김종근(1989)은 청각장애학생, 교사, 학부모의 청각장애 교육에 대한 일반적 가치관과 그 교육과정의 기본성격에 대한 견해를 분석하여, 청각장애 학생의 직업교육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로서 직업교육의 시작 시기는 고등학교부터가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며, 교사가 중점적으로 지도해야 할 점은 생활적응훈련과 직업기능훈련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각장애자의 직업교육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현행 직업교육이 학생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지 않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전문교사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최성규(2000)는 청각장애학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에 대한 태도와 의사소통 능력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청각장애학생은 진로교육에 대하여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의사소통으로 사용하는 수화의 능숙도가 높고 가족에 대한 친밀감이 긍정적일 수록 진로교육에 대한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달엽과 하승미(2004)는 청각장애 근로자와 인사 관리자 사이의 직업적응에 대한 인식차이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인의 직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수단 확보와 근무태도로 나타났으며,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은 객관적인 요소로 제시되었다.

청각장애학교의 교육과정은 크게 교과활동, 치료교과활동, 특별활동, 재량활동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청각장애학교 고등부 교육과정 편성은 직업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학생의 희망, 학교에 따라 인문과정, 실업계과정의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1998; 최성규, 정미숙, 2004). 7차 교육과정에서 청각장애학교의 개설된 전문교과는 목공예, 제복, 양재·자수, 도예, 상업미술 등이며, 학교와 지역사회 산업체와의 협력 부족으로 청각장애학교와 직장의 연계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청각장애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프로그램도 작업태도, 직업습관 등 직업전 기술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고용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이효자, 2004).

전환교육에 있어서 청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전환교육은 담당교사뿐만 아니라 부모, 기관이나 관련단체들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부모의 역할도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데, 부모는 교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자녀의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장애학생을 가장 오랫동안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각장애학생도 자신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청각장애학교의 전환교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각장애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여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각장애 특수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전환교육과 성인생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집단 간에 어떠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에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전환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학교의 전환교육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고, 집단 간에 인식의 차이를 알아본다.

둘째, 청각장애학생의 성인생활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고, 집단 간에 인식의 차이를 알아본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청각장애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교사, 학부모의 전환교육과 성인생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전국에 위치한 7개 청각장애특수학교(경기, 인천, 전주, 부산, 광주, 충주, 목포)의 중학부와 고등부 청각장애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520명의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중에서 완전하게 응답한 412명(학생 177명, 학부모 91명, 교사 1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3> 연구대상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수

변인	설명	빈도	백분율(%)
학생	남	99	52.9
	여	78	47.1
	합계	177	100.0
학생의 학교급	중학부	43	24.3
	고등부	134	75.7
	합계	177	100.0
학부모	남	43	47.3
	여	48	52.7
	합계	91	100.0
교사	남	52	36.1
	여	92	63.9
	합계	144	100.0

2. 조사 도구

조사 설문지는 크게 두 개영역에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영역인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은 4개의 하위영역(필요성, 교육과정, 실행상태, 방법)에서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두 번째 영역인 ‘성인생활에 대한 인식’은 4개의 하위영역(성인생활적응, 대학진학, 결혼, 직업)에서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 형태에 있어서는 17개 문항은 5점 척도 Likert 형식(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으로 구성되었으며, 8개 문항은 선다형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사를 위한 설문지의 문항은 집단 간의 인식 비교를 위해서 모두 동일한 문항으로 제작되었다. 설문지의 구성영역과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4> 설문지 구성영역과 내용

영역	하위영역	문항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4
	전환교육의 직업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3
	전환교육의 실행상태에 대한 인식	4
	전환교육의 방법에 대한 인식	5
성인생활에 대한 인식	성인생활적응에 대한 인식	2
	대학진학에 대한 인식	2
	결혼에 대한 인식	3
	직업에 대한 인식	2
전 체		25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06년 3월부터 5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월 동안에 예비조사 및 설문지의 수정작업을 마치고, 4월부터 5월 말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구성된 설문지는 설문지의 내용 및 구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45명(특수학교 교사 15명, 부모 15명,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이 곤란하거나 변인간의 비교가 곤란한 문항 들을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본 조사연구는 전국에 위치한 청각장애특수학교 중에서 설문조사가 실시 가능한 7개 청각장애 특수학교(경기, 인천, 전주, 부산, 광주, 충주, 목포)를 선정하고, 그 대상학교의 중학부와 고등부에 재학하고 있는 청각장애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각 담임선생님들에게 청각장애학생에게 설문지를 배부할 때 수화로 설명을 같이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청각장애 학생들의 설문지 문항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어장을 만들어 함께 배부하였다.

총 520명(학생 210명, 학부모 155명, 교사 155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는데, 그 중에서 완전하게 응답한 총 412명(학생 177명, 학부모 91명, 교사 144명)을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설문지 회수율은 각각 학생 84%, 학부모 59%, 교사 93%로 나타났으며, 총 회수율은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설문지 문항을 구성하는데 많은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구성하였으며, 또한 내용 및 구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설문지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지 않아, 이 점은 설문지 문항 구성에 있어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간주된다.

4. 자료 분석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들은 SPSS 12.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먼저 총 25문항에 대하여 백분율, 문항 백분율 및 문항의 빈도수와 같은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사에 따른 세 집단 간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선형질문은 F 검정과 Shé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고 비선형질문은 카이스퀘어(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총 25개 문항 중에 5점 Likert 척도로 된 문항은 17개 문항인데, 이에 대한 자료 분석은 범주변인이기에 교차분석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서 본 연구에서는 F검증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교차분석

을 하였을 때 획득도수와 기대도수가 5보다 작은 칸(cell)이 전체칸수의 약 20%를 상회하는 문항들이 있었다. 또한 ‘아주 아니다’와 같은 범주에서는 0이나 1이 있는 칸이 있었다. 둘째, 본 연구는 인식에 대한 문항이 다수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등간척도로 간주하여 양적변수로 보고 F검증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많은 연구들이 그렇게 분석하기도 하였다(예, 성태제, 2007; 1998). 셋째, 교차분석에서도 복합비교를 할 수 있지만, 세 집단 간의 차이를 사후분석으로 더욱 분명하게 보기위한 이유도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 제시한 이유들로 해서 교차분석보다 F검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이곳에 기술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

1) 전환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총 4개의 모든 문항에 있어서 학부모가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교사집단, 그리고 청각장애 학생들이 세 집단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학생의 일상생활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전환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항에 대하여 학부모가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생이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결과는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5.08, p<.001$). 그리고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한 Shéffe 사후검증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학생과 교사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는데, 이는 학생보다 학부모와 교사가 청각장애학생의 일상생활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전환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청각장애학생의 일상생활 자립능력을 위한 전환교육의 필요성

집단	N	평균(M)	표준편차(SD)	F	P	사후검사
학생(a)	175	3.54	.98	35.08	.000	a < b
학부모(b)	89	4.36	.66			a < c
교사(c)	142	4.18	.81			
합계	406	3.94				

(무응답 또는 결측치: 학생 2, 학부모 2, 교사 2)

둘째, 청각장애학생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전환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에 대해서도 학부모가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교사와 학생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이었으며($F=35.99, p<.001$),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구체적인 집단 간의 차이에서는 학부모와 교사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학생과 학부모, 학생과 교사집단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집단보다 학부모와 교사가 청각장애학생의 직업능력 향상에 전환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전환교육의 필요성

집단	N	평균(M)	표준편차(SD)	F	P	사후검사
학생(a)	176	3.60	.88	35.99	.000	a < b
학부모(b)	89	4.30	.64			a < c
교사(c)	142	4.24	.73			
합계	407	3.98				

(무응답 또는 결측치: 학생 1, 학부모 2, 교사 2)

셋째, 전환교육이 청각장애학생의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학부모가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M=4.28$), 학생집단의 인식($M=3.60$)이 세 집단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48.07, p<.001$). 구체적인 집단 간의 차이에서는 역시 학부모와 교사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학생집단보다 학부모와 교사들이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사회적응능력을 위한 전환교육의 필요성

집단	N	평균(M)	표준편차(SD)	F	P	사후검사
학생(a)	175	3.44	.91	48.07	.000	a < b
학부모(b)	90	4.28	.65			a < c
교사(c)	141	4.19	.74			
합계	406	3.89				

(무응답 또는 결측치: 학생 2, 학부모 1, 교사 3)

넷째, 전환교육이 청각장애학생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서도 학부모가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교사, 그리고 학생이 가장 낮은 인식을 보였다. <표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2.98, p<.001$). 그리고 집단 간의 차이에서는 학부모와 교사집단간의 차이는 없었지만, 학부모와 교사집단과 학생집단 간에는 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청각장애학생의 취업을 위한 전환교육의 필요성

집단	N	평균(M)	표준편차(SD)	F	P	사후검사
학생(a)	176	3.43	.91	22.98	.000	a < b
학부모(b)	89	4.13	.77			a < c
교사(c)	140	3.91	.86			
합계	405	3.75				

(무응답 또는 결측치: 학생 1, 학부모 2, 교사 4)

2) 전환교육의 직업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전환교육의 교육과정에 대한 총 3개의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교과목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생의 평균이 가장 높고(M=3.23), 학부모의 평균(M=2.76)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8.12, p<.001). 집단 간의 사후검증에서는 학생과 교사집단 간의 차이는 없었지만, 학생과 학부모간의 인식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9> 직업교과목에 대한 인식

집단	N	평균(M)	표준편차(SD)	F	P	사후검사
학생(a)	176	3.23	.83	8.12	.000	a > b
학부모(b)	83	2.76	.84			
교사(c)	142	3.04	.96			
합계	401	3.06				

(무응답 또는 결측치: 학생 1, 학부모 8, 교사 2)

둘째,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과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표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생 평균은 3.19, 학부모 평균은 3.54, 교사 평균은 3.77로 나타나 교사가 그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3.57, p<.001). 그리고 집단 간의 사후검증에서는 교사와 학부모집단과 학생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교사와 학부모간의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에서 직업교육관련 시설 및 기자재를 충분히 활용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표 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생 평균은 3.26, 학부모 평균은 2.92, 교사 평균은 3.13으로 학생이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교사와 학부모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3.83, p<.05). 그리고 각 집단 간의 차이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집단 간의 차이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직업교과목 변경에 대한 인식

집단	N	평균(M)	표준편차(SD)	F	P	사후검사
학생(a)	175	3.19	1.10	13.57	.000	a < b
학부모(b)	82	3.54	.95			a < c
교사(c)	142	3.77	.92			
합계	399	3.47				

(무응답 또는 결측치: 학생 2, 학부모 9, 교사 2)

<표 11> 직업교육관련 시설 및 기자재 활용에 대한 인식

집단	N	평균(M)	표준편차(SD)	F	P	사후검사
학생(a)	174	3.26	.90	3.83	.02	a > b
학부모(b)	78	2.92	.85			
교사(c)	141	3.13	.96			
합계	393	3.15				

(무응답 또는 결측치: 학생 3, 학부모 13, 교사 3)

3) 전환교육의 실행상태에 대한 인식

전환교육의 실행상태에 대한 총 4개의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학생이 학교에서 받고 있는 직업전환교육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학생들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이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표 10>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0.85, p<.001$). 그리고 집단 간의 사후검증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학생과 교사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업전환교육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학생집단의 만족도가 다른 두 집단보다 의미 있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교사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표 12> 직업전환교육에 대한 만족도

집단	N	평균(M)	표준편차(SD)	F	P	사후검사
학생(a)	172	3.13	.91	10.85	.000	a > b
학부모(b)	83	2.83	.88			a > c
교사(c)	142	2.68	.82			
합계	397	2.91				

(무응답 또는 결측치: 학생 5, 학부모 8, 교사 2)

둘째, 청각장애학교에서 학생의 진로에 관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생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교사, 학부모의 순서로 나타났지만, <표 11>에서와 같이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

에 학생의 진로에 관한 학교와 부모와의 협의에 대한 만족도는 세 집단에서 모두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학생의 진로에 대한 부모와의 협의에 대한 인식

집단	N	평균(M)	표준편차(SD)	F	P	사후검사
학생(a)	171	3.12	1.02	2.41	.09	
학부모(b)	83	2.87	.95			
교사(c)	143	2.94	.90			
합계	397	3.01				

(무응답 또는 결측치: 학생 6, 학부모 8, 교사 1)

셋째, 청각장애학생의 특성과 능력에 맞게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2.89, $p<.001$). <표 12>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학생 평균이 3.29로서 가장 높았으며, 교사 평균은 2.65로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한 사후검증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학생과 교사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부모와 교사는 거의 같은 정도의 인식을 보여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학생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교육 시행에 대한 인식

집단	N	평균(M)	표준편차(SD)	F	P	사후검사
학생(a)	173	3.29	.96	22.89	.000	a> b
학부모(b)	84	2.69	.93			a> c
교사(c)	143	2.65	.84			
합계	400	2.94				

(무응답 또는 결측치: 학생 4, 학부모 7, 교사 1)

넷째, 학생들이 학교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관련기관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 평균은 3.02, 학부모 평균은 2.67, 교사 평균은 2.52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2.87, $p<.001$). 그리고 <표 13>에서 볼 수 있듯이 집단 간의 사후검증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학생과 교사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학부모와 교사 집단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획득에 대한 인식

집단	N	평균(M)	표준편차(SD)	F	P	사후검사
학생(a)	176	3.02	.95	12.87	.000	a > b
학부모(b)	85	2.67	.99			a > c
교사(c)	143	2.52	.80			
합계	404	2.77				

(무응답 또는 결측치: 학생 1, 학부모 6, 교사 1)

4) 전환교육의 방법에 대한 인식

전환교육의 방법에 대한 총 5개의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환교육의 목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항에 대하여 세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37.97, p<.001$). 구체적으로 보면 학생은 취업 및 고용(33.7%)을 가장 중요시 하였으며, 이어서 일상생활(활의 자립, 지역사회적응, 여가시간 활용, 기타의 순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부모가 생각하는 전환교육의 목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의 자립(39.3%)이었으며, 취업 및 고용, 지역사회적응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취업 및 고용(53.1%)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사회적응, 일상생활의 자립 등으로 나타났다(<표 14> 참조). 학생과 교사는 취업과 고용을 전환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보고 있지만, 학부모는 일상생활의 자립을 전환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6> 전환교육의 목표에 대한 인식

집단	일상생활의 자립	취업 및 고용	지역사회 적응	여가시간 활용	기타	합계	χ^2	P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학생	47 (27.3)	58 (33.7)	43 (25.0)	14 (8.1)	10 (5.8)	172	37.97	.000
학부모	35 (39.3)	30 (33.7)	23 (25.8)	0 (.0)	1 (1.1)	89		
교사	27 (18.9)	76 (53.1)	36 (25.2)	4 (2.8)	0 (.0)	143		
합계	109 (27.0)	164 (40.6)	102 (25.2)	18 (4.5)	11 (2.7)	404		

(무응답 또는 결측치: 학생 5, 학부모 2, 교사 1)

둘째, 전환교육 담당자는 누가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문항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간에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59.62, p<.001$). 그러나 <표 15>에서 볼 수 있듯이 전환교육 담당자로서 학생, 학부모, 교사집단이 모두 직업지도교사(56.4%)를 가장 많이 희망하였고, 다음으로는 교과 담당 교사(17.7%)로 나타났다.

<표 17> 전환교육 담당자에 대한 인식

집단	치료교육 담당 교사	직업지도 담당 교사	교과 담당 교사	상담 교사	기타	합 계	X ²	P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학생	13 (7.6)	80 (47.1)	42 (24.7)	17 (10.0)	18 (10.6)	170	59.62	.000
학부모	14 (15.9)	54 (61.4)	16 (18.2)	3 (3.4)	1 (1.1)	88		
교사	2 (1.4)	92 (64.3)	13 (9.1)	4 (2.8)	32 (22.4)	143		
합계	29 (7.2)	226 (56.4)	71 (17.7)	24 (6.0)	51 (12.7)	401		

(무응답 또는 결측치: 학생 7, 학부모 3, 교사 1)

셋째, 전환교육의 계획과 실시에 있어서 어려운 점에 대한 인식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집단 간에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83.32, p<.001$). <표 15>에서와 같이 학생은 ‘가족/부모의 협조 부족’에 대해 가장 어려운 점으로 제시하였지만, 학부모는 ‘시설/설비 및 프로그램 부족’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지역관련업체의 인식 및 협조 부족’과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부족’을 같이 제시하였다. 그리고 교사는 ‘지역관련업체의 인식 및 협조 부족’을 제일 어려운 점으로 제시하였다.

<표 18> 전환교육의 계획 및 실시에 있어 어려운 점

집단	교사의 인식 및 전문성 부족	지역관련업체의 인식 및 협조 부족	시설/설비 및 프로그램 부족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부족	가족/부모의 협조 부족	합 계	X ²	P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학생	41 (24.7)	29 (17.5)	24 (14.5)	26 (15.7)	46 (27.7)	166	83.32	.000
학부모	7 (8.1)	23 (26.7)	27 (31.4)	23 (26.7)	6 (7.0)	86		
교사	17 (12.1)	56 (39.7)	39 (27.7)	28 (19.9)	1 (.7)	141		
합계	65 (16.5)	108 (27.5)	90 (22.9)	77 (19.6)	53 (13.5)	393		

(무응답 또는 결측치: 학생 11, 학부모 5, 교사 3)

넷째, 직업전환교육의 실시 시기에 대하여서 교사는 중학교라는 응답이 35.9%로 가장 많았으나, 학부모와 학생은 고등학교라는 응답이 42.4%와 42.9%로 가장 많았다. <표 17>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응답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35.47, p<.001$). 학부모나 학생들은 사회로 진출할 시기인 고등학교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교사의 경우 더 많은 기간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9> 직업전환교육의 실시 시기에 대한 인식

집단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합 계	X ²	P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학생	22 (13.1)	20 (11.9)	52 (31.0)	72 (42.9)	2 (1.2)	168	35.47	.000
학부모	5 (5.9)	15 (17.6)	24 (28.2)	36 (42.4)	5 (5.9)	85		
교사	14 (9.9)	44 (31.0)	51 (35.9)	30 (21.1)	3 (2.1)	142		
합계	41 (10.4)	79 (20.0)	127 (32.2)	138 (34.9)	10 (2.5)	395		

(무응답 또는 결측치: 학생 9, 학부모 6, 교사 2)

다섯째, 효과적인 직업교육 방법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세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06.59, p<.001$). <표 18>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는 지역 사회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방법(48.6%)을 가장 선호하였고, 그다음으로 이론과 실기 병행수업(45.1%)을 제시하였다. 학부모는 이론과 실기 병행수업(56.5%), 지역사회현장 지도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학생들은 비록 지역사회현장지도를 제일 효과적으로 제시하였지만, 거의 네 가지 방법을 모두 고루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직업교육 방법에 대한 인식

집단	교실의 이론 수업	작업장에서 실기수업	이론과 실기 병행수업	지역사회 현장 지도	기타	합 계	X ²	P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학생	43 (25.6)	35 (20.8)	39 (23.2)	44 (26.2)	7 (4.2)	168	106.59	.000
학부모	3 (3.5)	3 (3.5)	48 (56.5)	29 (34.1)	2 (2.4)	85		
교사	0 (.0)	5 (3.5)	64 (45.1)	69 (48.6)	4 (2.8)	142		
합계	46 (11.6)	43 (10.9)	151 (38.2)	142 (35.9)	13 (3.3)	395		

(무응답 또는 결측치: 학생 9, 학부모 6, 교사 2)

2. 성인생활에 대한 인식

1) 성인생활적응에 대한 인식

성인생활적응에 관련된 2개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 학생이 졸업 후에 성인생활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지에 대해서, <표 19>에서와 같이 학생 평균은 3.49, 학부모 평균은 3.22, 교사 평균은 3.30으로 나타나 학생이 가장 높은 기대를 보인 반면에 학부모의 기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3.11, p<.05$). 그리고 집단 간의 사후검증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집단 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성인생활적응에 대한 일반적 기대

집단	N	평균(M)	표준편차(SD)	F	P	사후검사
학생(a)	170	3.49	.97	3.11	.046	a > b
학부모(b)	87	3.22	1.02			
교사(c)	141	3.30	.73			
합계	398	3.36				

(무응답 또는 결측치: 학생 7, 학부모 4, 교사 3)

둘째, 청각장애학생이 앞으로 성인생활에서 건청인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0.19, p<.001). 즉 학생이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학부모가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 간의 사후검증에 의하면, 학생과 학부모, 학생과 교사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와 교사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성인생활에서 건청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집단	N	평균(M)	표준편차(SD)	F	P	사후검사
학생(a)	172	2.93	1.03	10.19****	.000	a > b
학부모(b)	86	2.43	.95			c < a
교사(c)	142	2.58	.77			
합계	400	2.70				

(무응답 또는 결측치: 학생 5, 학부모 5, 교사 2)

2) 대학 진학에 대한 인식

청각장애학생의 대학 진학과 관련된 2개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희망하는지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2.88, p<.001). <표 2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생 평균은 3.15, 학부모 평균은 3.11로 나타나 거의 같은 인식을 보인 반면에 교사 평균은 2.36으로서 가장 낮게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의 사후검증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의 차이는 없었지만,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와 교사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기대의 차이를 보였다.

<표 23> 청각장애 학생의 대학 진학에 대한 인식

집단	N	평균(M)	표준편차(SD)	F	P	사후검사
학생(a)	171	3.15	1.28	22.88***	.000	a > c
학부모(b)	88	3.11	1.13			b < c
교사(c)	142	2.36	.81			
합계	401	2.86				

(무응답 또는 결측치: 학생 6, 학부모 3, 교사 2)

둘째, 청각장애 특수학교 교육이 대학진학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문항에 대하여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 비교적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에서와 같이 학생과 학부모는 평균이 3.13으로 같이 나왔으며, 교사는 조금 낮은 3.07의 평균을 보였는데, 이는 세 집단의 인식이 거의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4> 청각장애 학교 교육이 대학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인식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검사
학생(a)	171	3.13	1.10	.18	.84	
학부모(b)	87	3.13	1.07			
교사(c)	142	3.07	.77			
합계	400	3.11				

(무응답 또는 결측치: 학생 6, 학부모 4, 교사 2)

3) 성인생활에서 결혼에 대한 인식

청각장애 학생의 성인생활 중에서 결혼과 관련된 3개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 학생이 결혼을 한다면 건청인과 결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학생 평균은 2.98, 학부모 평균은 3.20, 교사 평균은 2.91로 나타나 학부모가 가장 높게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23>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청각장애 학생이 건청인과 결혼 하는 것에 대한 인식

집단	N	평균(M)	표준편차(SD)	F	P	사후검사
학생(a)	169	2.98	1.21	2.05	.13	
학부모(b)	87	3.20	.96			
교사(c)	142	2.91	.90			
합계	398	3.00				

(무응답 또는 결측치: 학생 8, 학부모 4, 교사 2)

둘째, 청각장애학생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문항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0.54, p<.001$). <표 24>와 같이 학생 평균은 3.57, 학부모 평균은 3.68, 교사 평균은 4.08로 나타나, 교사가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학생 자신들은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의 사후분석에서 학생과 학부모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교사와 학생집단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결혼 후 자녀에 대한 인식

집단	N	평균(M)	표준편차(SD)	F	P	사후검사
학생(a)	171	3.57	1.18	10.54	.000	a < c
학부모(b)	87	3.68	.91			b < c
교사(c)	141	4.08	.79			
합계	399	3.77				

(무응답 또는 결측치: 학생 6, 학부모 4, 교사 3)

셋째, 청각장애학생이 결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가 무엇인지에 관한 문항에 대해 세 집단 모두에서 '경제적 안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교사와 학부모는 55.6%, 55.7%로 높게 반응한 반면에 학생은 34.3%로 다소 낮게 반응하였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는 독립생활이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반면에, 학생은 자녀양육, 부모봉양 등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75.21, p<.001$).

<표 27> 결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에 대한 인식

집단	경제적 안정 빈도 (%)	자녀양육 빈도 (%)	부모봉양 빈도 (%)	독립생활 빈도 (%)	기타 빈도 (%)	합계	χ^2	P
학생	59 (34.3)	39 (22.7)	36 (20.9)	26 (15.1)	12 (7.0)	172		
학부모	49 (55.7)	9 (10.2)	1 (1.1)	27 (30.7)	2 (2.3)	88		
교사	79 (55.6)	17 (12.0)	2 (1.4)	43 (30.3)	1 (.7)	142		
합계	187 (46.5)	65 (16.2)	39 (9.7)	96 (23.9)	15 (3.7)	402		

(무응답 또는 결측치: 학생 5, 학부모 3, 교사 2)

4) 성인생활에서 직업에 대한 인식

청각장애학생의 성인생활 중에서 진로 및 직업과 관련된 2개의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학생이 졸업 후에 희망하는 진로에 대해서는 <표 26>에서 볼 수 있듯이 교사와 학생은 '취업'이라는 응답이 각각 46.8%,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학부모는 '대학진학'이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진로

에 대한 두 번째 높은 응답에 있어서 학생은 대학진학, 학부모는 취업, 교사는 직업훈련으로 반응하였다. 이러한 응답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43.27$, $p<.001$).

<표 28> 청각장애 학생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인식

집단	대학진학	전공과	취업	직업훈련	가정생활	기타	합계	χ^2	P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학생	50 (29.1)	8 (4.7)	74 (43.0)	17 (9.9)	11 (6.4)	12 (7.0)	172	43.27	.000
학부모	36 (40.9)	11 (12.5)	21 (23.9)	15 (17.0)	3 (3.4)	2 (2.3)	88		
교사	25 (17.7)	8 (5.7)	66 (46.8)	30 (21.3)	0 (.0)	12 (8.5)	141		
합계	111 (27.7)	27 (6.7)	161 (40.1)	62 (15.5)	14 (3.5)	26 (6.5)	401		

(무응답 또는 결측치: 학생 5, 학부모 3, 교사 3)

둘째, 청각장애 학생이 앞으로 종사하기 원하는 직업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응답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 49.03$, $p<.001$). <표 27>에서 보는바와 같이 청각장애 학생은 일반기업체, 자영업, 기타, 보호작업장, 관공서 순서로 응답한 반면에 학부모는 일반기업체, 관공서, 자영업, 보호작업장, 기타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교사는 일반기업체, 관공서, 보호작업장, 기타, 자영업 순서로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 학부모, 교사 집단 모두가 일반기업체를 제일 희망하는 직종으로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관공서, 자영업, 기타, 보호작업장 순서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응답이 교사보다 높았으며, 관공서는 학부모와 교사의 응답이 학생보다 높았고, 보호작업장에 대해서는 학생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9> 청각장애 학생의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인식

집단	자영업	일반 기업체	관공서	보호 작업장	기타	합계	χ^2	P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학생	30 (17.8)	66 (39.1)	14 (8.3)	26 (15.4)	33 (19.5)	169	49.03	.000
학부모	15 (18.3)	35 (42.7)	18 (22.0)	8 (9.8)	6 (7.3)	82		
교사	5 (3.5)	91 (64.5)	23 (16.3)	12 (8.5)	10 (7.1)	141		
합계	50 (12.8)	192 (49.0)	55 (14.0)	46 (11.7)	49 (12.5)	392		

(무응답 또는 결측치: 학생 8, 학부모 9, 교사 3)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각장애 특수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전환교육과 성인생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집단 간에 어떠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에 위치한 7개 청각장애 특수학교의 중학부와 고등부에 재학하고 있는 청각장애학생, 학부모, 교사 412명(학생 177명, 학부모 91명, 교사 14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및 결론을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

청각장애학생, 학부모, 교사의 전환교육에 대한 인식은 네 개의 하위영역인 전환교육의 필요성, 직업교육과정, 전환교육의 실행상태, 전환교육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전환교육 인식에 대한 설문지 문항 중에서 특히 직업교육과정과 전환교육의 실행상태에 대한 문항들은 현재 실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태에 대한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첫째, 전환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교사집단, 그리고 청각장애특수학교 학생들이 세 집단 중에서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환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총 네 개 문항에 대하여 세 집단의 응답은 모두 같은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비록 청각장애학생의 일상생활 자립능력, 직업능력, 지역사회 적응능력, 취업을 향상시키는데 전환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세 집단이 모두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학부모와 교사들이 청각장애학생들보다 그 필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성규(2000)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청각장애특수학교 고등학생들은 진로교육에 대하여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최성규(2000)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을 교사와 학부모 집단과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와 같이 집단 간의 차이를 알 수는 없었다.

둘째, 전환교육에 따른 직업교육과정에 있어서 학생, 학부모, 교사는 서로 다른 인식을 보여주었다. 직업교과목 시간에 대해서 학생들은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학부모는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교과목의 운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직업교과목 변경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가장 높게 반응하였는데, 이는 실제 교과목을 운영하는 교사들이 전환교육에 따른 직업교과목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업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에서 학생들은 현재 상태에 만족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에, 교사와 학부모들은 변화와 개선을 원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바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환교육의 필요성에서 학생들의 인식이 학부모와 교사들 보다 낮은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학생들이 직업교육과정의 운영 상태에 대해 더 높게 인식하기 때문에 전환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달엽과 하승미의 연구(2004)는 청각장애인의 직업적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서 직장에서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수단의 확보와 근무태도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청각장애 직업전환교육과정에 있어서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전환교육의 실행상태에 대한 인식에서는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학부모와 교사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을 실제 수행하는 교사들이 전환교육 실행에 대하여 가장 낮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업전환교육의 만족도에 대해서 교사들이 가장 낮은 인식을 보였으며, 장애학생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교육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학생들보다 교사들이 유의미하게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인생활 적응과 관련이 있는 지역사회기관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교사들이 매우 낮은 인식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장애유형은 틀리지만 정신지체특수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김진호(2006) 연구와 유사한 결과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교육을 실제로 수행하는 교사들의 낮은 만족도와 인식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후속연구들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전환교육의 방법에 대한 인식에서도 학생, 학부모, 교사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교육의 목표에 대해서 학생과 교사는 취업 및 고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에 학부모는 일상생활 자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환교육 담당자에 대해서는 세 집단 모두 직업지도 교사를 제일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최성규(2000)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청각장애특수학교 고등학생들은 미래의 취업과 직업관에 대하여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환교육 실시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교사는 지역관련업체의 인식 및 협조 부족을 가장 어려움 점으로 제시하였고, 학부모는 시설/설비 및 프로그램 부족을, 학생은 가족/부모의 협조 부족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전환교육 실시에서 부모의 협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전환교육에 있어서 부모교육과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환교육 실시시기에 대하여 학부모와 학생은 고등학교시기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지만, 실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중학교부터 전환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현장에서 교육을 수행하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성인생활적응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환교육을 더 이른 시기부터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각

장애학생의 직업교육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업교육시기를 중학교로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김종근(1989)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전환교육의 조기 실시를 강조하는 현재 동향과 유사한 관점인 것을 알 수 있다(Baer et al., 2005; Sitlington & Clark, 2006).

일반적으로 청각장애학생들은 직업적 능력, 적성, 요구나 기호, 관심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기보다 일반적인 장애의 특성에 따라 한정된 영역에 관련된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 이러한 학교 환경에서 교육된 청각장애학생들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장애의 한계로 인해 성인사회에 나아가 습득한 기술을 활용하는 범위도 적고 취업을 유지하는 기간도 짧아 사실상 주거와 성인사회에서의 독립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성인생활을 위한 준비와 직업기술에 필요한 학생 개인의 능력과 요구를 평가하여 그 평가에 기초한 체계적인 전환교육을 적용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다양한 후속연구들이 필요하다.

2. 성인생활에 대한 인식

청각장애학생, 학부모, 교사의 성인생활에 대한 인식은 네 개의 하위영역인 성인생활 적응, 대학진학, 결혼생활, 직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학생의 일반적인 성인생활 적응에 대하여 당사자들인 청각장애학생들이 가장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학부모들이 가장 낮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생활에서 건청인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학부모가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환교육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가족과 부모들의 협조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반응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각장애학생의 성인생활적응에 대한 부모들의 기대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부모교육과 관련 지원체계를 모색하는 후속연구들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청각장애학생의 대학진학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비교적 교사들보다 더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각장애학생의 대학진학에 대한 기대에서는 교사들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각장애학교 교육이 대학진학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인식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는 동일한 인식을 보였고, 교사의 인식은 비교적 낮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교사가 청각장애학생들의 대학진학에 낮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현재 장애학생의 추후교육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재 동향과는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Sitlington & Clark, 2006). 따라서 청각장애특수학교에서 청각장애학생들에게 취업과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과, 청각장애학생들의 대학진학을 위한 대학특례입학제도와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원하는 것에 대한 후속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청각장애학생의 결혼생활에 대한 인식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 간에 많은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학생이 건청인과 결혼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비록 학부모가 조금 더 높은 인식을 보였고 교사가 조금 더 낮은 인식을 보였지만,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즉,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인식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각장애인의 자녀 출산에 대해서는 세 집단에서 모두 비교적 높은 인식을 보였지만 집단 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학생들이 비교적 낮게 반응하였다. 결혼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에 있어서는 세 집단에서 모두 경제적 안정을 가장 높게 제시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학부모와 교사는 독립생활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반면에 학생은 자녀양육과 부모봉양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하여 청각장애학생의 결혼관과 자녀 출산에 대한 상담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구들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후속연구들이 실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청각장애학생의 졸업 후 진로와 희망하는 직종에 대한 인식에서는 학생과 교사는 취업에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에 학부모는 대학진학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희망하는 직업에 대해서는 세 집단이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는 있었지만, 세 집단 모두 일반 기업체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호 작업장에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와 교사들보다 취업 당사자들인 청각장애학생들의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의외의 결과로 여겨진다. 따라서 청각장애특수학교에서 학생들의 일반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체나 제조업체와 연계한 지역사회직업훈련과 직업전환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청각장애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전환교육과 성인생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세 집단 간에 어떠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전환교육과 성인생활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의 변화와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수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장애학생들이 특수교육을 통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성인생활에서 최대한 자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있다면,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결과와 효과도 전환교육에 따른 성인생활적응 관점에서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환교육은 청각장애학생들로 하여금 장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인사회로의 성공적인 적응을 하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교육일 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다리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환교육 연구와 실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제외되고 있는 감각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인생활 적응능력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전환교육 과정과 방안에 관한 다양한 후속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곽정란, 정운기, 김경진 (2004). 농인의 관점에서 본 농교육의 전환. **특수교육연구**. 11(2), 231-253.
- 교육인적자원부 (1998). **특수학교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김종근 (1989). 청각장애자의 직업교육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진호 (2001). 전환교육의 이론과 적용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35(4), 73-98.
- 김진호 (2002). 장애학생의 전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훈련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적용방안. **특수교육학연구**. 37(2), 25-40.
- 김진호 (2003). 특수교육 분야에서 본 현행 성인직업 재활체계 및 서비스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 및 협력방안. **직업재활연구**. 13(2), 1-30.
- 김진호 (2004a). 충남지역 특수학교 발달장애 졸업생의 성인생활 실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5(3), 225-247.
- 김진호 (2004b). 충남지역 정신지체특수학교 학부모들의 현장실습훈련과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정신지체연구**. 6. 1-16.
- 김진호 (2006). 충남지역 정신지체특수학교 교사들의 지역사회 현장실습훈련에 대한 인식. **정신지체연구**. 8(1). 217-231.
- 박승희, 박현숙, 박희찬 역(2006). **장애청소년 전환교육**. 서울: 시그마프레스.
- 박정식, 조인수 (2006). 특수학교 전환교육 실행수준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41(1), 133-156.
- 박희찬 (1999). 특수학교 직업교육의 현황과 과제. **장애인고용**. 32. 24-31.
- 박희찬 (2002). 장애졸업생 추적조사와 전환교육. **특수교육학연구**. 37(2), 79-111.
- 성태제 (2007). **현대기초통계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성태제 (1998). **교육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신은경 (2004). 발달장애 청소년의 전환교육에 관한 인식수준 연구. **직업재활연구**. 14(1), 133-164.
- 이달엽, 하승미 (2004). 청각장애 근로자의 인사관리자의 직업적응에 관한 인식연구. **직업재활연구**. 14(2). 89-117.
- 이성규, 조미경, 심진례, 전해연, 최성이 (2002). **청각장애인 직업준비에 관한 연구**. 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 이효자 (2004). **청각장애학교 직업교육 운영의 효율화 방안**. 국립서울농학교.
- 조인수 (2002).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환교육과 서비스**. 경북: 대구대학교출판부.
- 최성규 (2000). 청각장애학생의 진로교육에 대한 태도와 의사소통 능력과의 상관관계. **특수교육연구**. 23(1), 153-170.
- 최성규, 정미숙 (2004). 청각장애학교의 제7차 교육과정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특수교육학연구**. 39(1), 287-310.
- Baer, R., Flexer, R. W., & McMahan, R. K. (2005). Transition models and promising practices. In R. W. Flexer, T. J. Simmons, P. Luft & R. M. Baer (2nd ed.). *Transition planning for secondary students with disabilities* (pp. 53-82).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 Pierangelo, R. & Giuliani, G. A. (2004). *Transition services in special education: A practical approach*. Boston: Allyn & Bacon.
- Sitlington, P. L., & Clark, G. M. (2006). *Transition education and service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4th ed.). Boston, MA: Allyn & Bacon.

Perceptions of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on Transition Education and Adult Life for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Lee, Eun-Choel

Okkwaha High School

Kim, Jinho

SoonChunHy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s of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on the transition education and adult lives for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in the transition perspective. The questionnaire for this study was composed of 25 items in total. The first category, transition education, included 16 items which were divided into the four sub-categories (need for transition education, curriculum of vocational education, the present status of transition education, methods of transition education). The second category, adult life of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included 9 items based on the four sub-categories (adaptation to adult life, college education, marriage, job selection). Total 412 questionnaires were analysed. The questionnaires were responded by 177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91 parents, 144 teachers who were enrolled in 7 middle and high schools for hearing impair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presented and discussed based on the 2 categories, 8 sub-categories, and 25 items.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Key words: transition education, adult life, hearing impairment, employment

논문 접수: 2007. 8. 4 심사 시작: 2007. 8. 5 게재 확정: 2007. 9. 26